

사라진 '3월 공채'...광주·전남 대졸취업자 '뚝'

'4년제' 광주 1만6000명·전남 7000명 줄어...13개월 연속 감소 전남 1분기 청년실업률 13.4% '시·도 최고'...광주 8.5%로 올라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3월 공채 대목'은 옛말이 되면서 지난달 광주·전남 4년제 대졸 취업자가 2만3000명 감소했다.

14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 취업자 수는 광주 27만7000명·전남 21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만6000명(-5.5%), 7000명(-3.1%) 감소했다.

4년제 대졸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3월 2000명 줄어든 이후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취업자가 광주 3만3000명·전남 1만9000명 등 5만2000명 줄어들며 통계를 낸 지난 1998년 이후 최악의 취업난을 기록했다.

지난달 4년제 대졸 취업자 감소 폭은 전남(-4만2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지만 '3월 공채 시즌'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취업자 수가 크게 줄었다.

3월 기준 4년제 취업자는 지난 2016년 6000명, 2017년 2만2000명, 2018년 2만3000명, 2019년 3만4000명 등으로 해마다 늘다 지난해 3월(-2000명)과 올해 3월(-2만3000명)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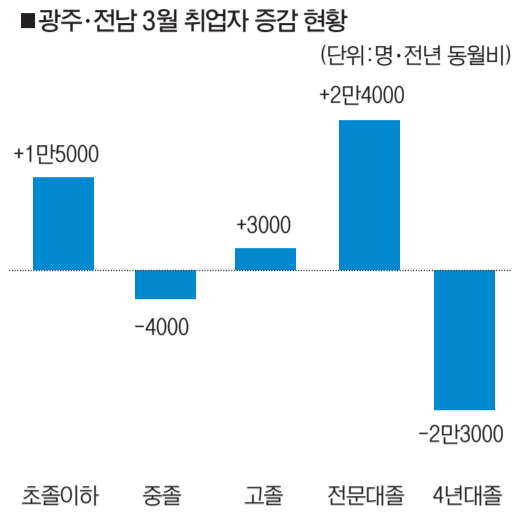
3월에 4년제 취업자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9000명) 이후 10년 만이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감을 교육정도별로 보면 '초졸 이하'가 1만5000명(광주 4000명·전남 1만1000명) 증가하고, '고졸'은 광주가 3000명 늘고 전남은 전년과 그대로였다.

중졸 취업자는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000명, 3000명 등 4000명이 감소했다.

대졸 이상 취업자 가운데 4년제를 제외한 전문대 졸업은 광주 1만5000명·전남 9000명 등 2만4000명 증가했다.

이날 발표한 1분기(1~3월) 15~29세 청년 실업률은 전남이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 5분기 만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기며 17개 시·도에서 가장 높았다.

전남 청년 실업률은 1년 전보다 6.3%포인트나 급증한 13.4%로, 전국 평균 9.9%를 웃돌았다. 광주 청년 실업률은 8.5%로, 전년 같은 분기 보다 1.2%포인트 증가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1만4000명(광주 4000명·전남 1만명) 증가했지만, 들여다보면 고용의 질은 악화됐다. 지역에서 자영업자를 포함한 비임금근로자는 4만명(광주 1만4000명·2만6000명) 늘어난 반면, 임금근로자는 2만6000명(광주 1만명·전남 1만6000명) 줄었다.

상용근로자는 두 지역에서 1만4000명씩 총 2만8000명이 줄었다. 임시근로자는 3000명 증가하고, 일용근로자는 2000명 감소했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광주에서는 도소매·숙박·음식점업에서 1만1000명(6.8%),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9000명(2.9%) 늘었다.

농림어업은 3000명(-20.8%), 광공업 1만명(-8.9%),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이 2000명(-3.0%) 줄었다.

전남에서는 농림어업 2만2000명(1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4000명(5.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에서 4000명(1.3%) 증가했다.

반면 광공업 1만명(-9.6%), 도소매·숙박·음식점업 8000명(-4.5%), 건설업에서 3000명(-3.8%)이 줄었다. /백희준 기자 bhj@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182.38 (+13.30)
↑ 코스닥	1014.42 (+4.05)
↓ 금리 (국고채 3년)	1.102 (-0.036)
↓ 환율 (USD)	1116.60 (-9.30)

고효율 가전 구입비 10% 지원

한전, 복지할인가구 대상

한국전력은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때 가구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비용의 10%를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업 예산은 700억원 규모이며 사회적 배려계층인 한전 복지할인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할인가구는 장애인(기준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기족(5인 이상), 생명유지장치 사용 가구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전기요금청구서 또는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support.kepec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23일 이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구매한 대상 제품의 효율등급 리벨과 제조번호 명판,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정산과 입금에는 신청 후 약 20일이 걸린다.

코웨이, 쿠첸 등 일부 가전회사는 지원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자 별도 할인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복지에 기여하고, 약 2만4000가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인 연간 약 7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종이티켓 줄이Go!...모바일로 예약하Go!

김현철 금호고속 대표이사 '고고 챌린지' 동참

김현철 금호고속 대표이사는 14일 '고고 챌린지'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행동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각각 1가지씩 약속한 뒤 다음 참가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김 대표이사는 모바일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종이 티켓, 영수증 대신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 티켓, 전자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는 의미에서 '종이티켓 사용은 줄이Go!'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예약하Go!' 라는 문구로 캠페인에 참여했다. <사진>

김 대표이사는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지구를 지키는 의미있는 행사에 동참하게 돼 영광이다"며 "나부터 시작하자는 마음으로 우리 사회에 선한 영향력이 널리 확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고속은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광주·스퀘어, 전주고속터미널 등 사업장 내 대면 업무를 줄이고, 모바일 이용 추세에 맞춰 선제적으로 무인발권기를 도입했다.

또 이용 불편객을 위한 안내요원도 상시 배치하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더 스포티하게...기아 '더 뉴 K3' 공개

기아가 이달 출시 예정인 K3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K3' (The new K3·사진)의 내·외장 디자인을 14일 공개했다.

더 뉴 K3는 2018년 2월 K3 출시 이후 3년만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로, 미래지향적이고 스포티한 디자인과 최신 안전·편의사양을 탑재했다고 기아는 설명했다.

전면은 슬림한 전조등과 연결된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넓어 보이는 이미지를 연출했으며, 그릴에서 전조등으로 이어지는 역동적인 느낌의 크롬 가니쉬를 통해 입체감을 살렸다.

방향지시등을 전조등에 통합해 간결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속도감을 형상화한 주간주행등 탑재로 세련된 느낌도 강조했다. 또 전투기 날개를 연상시

키는 범퍼 하단부를 통해 날렵한 인상을 구현했다.

후면은 가로 지향적인 디자인에 입체감을 더해 안정적이면서도 역동적인 감성을 살렸고, 속도감을 형상화한 디자인을 후미등에도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줬다.

내장 디자인은 10.25인치 대화면 유보(UVO) 내비게이션과 10.25인치 클러스터를 탑재했으며, 내비게이션 부분에 터치 스위치를 적용했다.

편의사양으로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와 차로 유지 보조(LFA),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NSCC) 등을 적용했고,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PB)와 오토홀드, 원격시동 스마트키 등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K3는 스포티하면서 세련



된 이미지를 강조해 디자인 완성도를 높이고 고객이 선호하는 안전·편의사양을 대거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는 이달 2014년 인기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생을 현대 직장인의 삶에 맞게 재해석한 '미생 2021' (Presented by The new K3) 프리런칭 영상도 공개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포스코, 리튬 상용화 나서...전기차 100만대 생산 규모

광양서 연간 4만3000t

포스코가 광석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 검증에 마친 뒤 본격적인 상용화 사업에 나선다.

14일 포스코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9일 이사회에서 광양 경제자유구역 울촌산업단지 내 연간 4만3000t 규모의 광석 리튬 추출 공장 투자 사업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

리튬 4만3000t은 전기차 100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포스코는 2010년부터 RIST(포항 산업과학연구원)와 함께 염수와 광석에서 각각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광양제철소 내 시범공장을 2년 이상 운영하며 리튬 생산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문인력

을 양성해 리튬 상업 생산 준비도 마친 상태다.

리튬 추출 공장은 호주에서 주로 생산되는 리튬 광석을 주원료로 자체 연구·개발한 생산 공정을 적용, 생산라인을 구성할 예정이다. 202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내에 착공할 계획이다.

해당 공장에서는 수산화리튬을 전용으로 생산한다. 앞서 포스코는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매장량이 확인된 호수 인근에도 올해 안에 연간 2만5000t 규모의 공장을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앞으로 광석 및 염수 리튬 추출 사업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통해 2023년까지 연 7만t, 2026년까지 연 13만t, 2030년까지 연 22만t의 리튬 생산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조합원님과 함께한 광주문화신탁 창립 27주년

광주대표 시민금융 협동조합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파트담보대출

아파트 감정시세
최고 50~60%
추가신용대출 상담가능

담보대출

시세 **80%까지** 법인 **100억**
개인 **50억** 가능

각종 부동산담보(아파트, 주택, 상가, 빌딩, 대지, 전·답, 임야 등) 및 신축자금(시설자금) 등

상생협력대출금

*** 사회적 경제기업

대출금리 **2.28%**
대출대상 (예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정부보증 햇살론대출

근로자 최대 **1,500만원**
(근로자 금액한도 기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지원)

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연선로 91번길 20-4
☎ 1644-7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동리점 서대문점 문충점 문충점 사무소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문충점
---	---	---	---	---	---	---	---

☎ 266-4150 ☎ 573-4150 ☎ 528-4150 ☎ 572-4150 ☎ 576-4150 ☎ 513-4150 ☎ 264-4150